

대마도(對馬島) 종가문서(宗家文書)

한글 서간류에 대하여

기시다 후미타카(岸田文隆) *

KISHIDA, Fumitaka. On the Hangeul Alphabet Letters in Tsushima Souke Bunko.

Although OSA Masanori(長正統) (1978) introduced only 8 hangeul letters in Tsushima Souke Bunko, it became clear that about 100 ones existed in there, by publication of Tsushima Rekishi Minzoku Shiryoukan (對馬歴史民俗資料館)(2009, 2012), Catalogues of the Documents in Tsushima Souke Bunko. These letters are very valuable because they show us the real image of communic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in these days. Tsushima Rekishi Minzoku Shiryoukan (對馬歴史民俗資料館)'s research project team has deciphered these letters for 2 years. Some letters do not have any statement about the addresser, the receiver, the age, etc. But these information can be known by referring to historical records, such as ODA Ikugorou(小田幾五郎)'s Goyoukakimonohikae(御用書物控), Wakankansyunikki(倭館館守日記), Tyoosentsuusinsikiroku (朝鮮通信使記録).

Keywords: Tsushima Souke Document, Hangeul Letter, Japanese Interpreter in Korean, Korean Interpreter in Japan, ODA Ikugorou(小田幾五郎)

1. 들어가기

에도(江戸) 시대에 일본과 조선 간의 외교 현장에서 의사소통이나 정보전달은 대부분 한국어로 행하여졌다고 추측되지만 이에 사용된 한국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드러내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의사소통의 단인 한국어 자체는 거의 기록되는 일이 없고 한국어를 매개로 하여 얻어진 정보만이 일본어나 한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적으나마 전해지는 한국어 자료에는 한자차용 표기, 즉 이두식 표기로 기록된 것과 한글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특히 후자는 현존하는 자료가 매우 적다. 가끔 2차 자료인 기록류에 한글문서를 옮겨 적은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¹, 문서 원본이 전해지는 것은 오사 마사노리(長正統 1978) 가 소

* 日本 大阪大学言語文化研究科 教授

¹ 예를 들어서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소장[記録類 4533] 「分類紀事大綱」 第3期 6冊에는 癸酉(1753) 6월 7일 조에 商訳(都中) 一統이 裁判에게 보낸 한글문서의 사본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 동 위원회 소장[記録類 6124] 「両訳より差出候書面写并和解」에는 丙申(1836) 11월 15일 조에 訓導 李宜叙(聖五)과 別差 玄膺祖(子述)이 倭館 館守에게 보낸 한글문서의 사본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일본 慶應義塾大学 소장 「文化通信使記録(江戸書留)」 26冊 文化5년(1808) 2월 16일 조

개한 다음의 왜학역관 한글편지 8 통이 우리가 아는 전부였다.

- (01) 朴俊漢이 아무에게 보낸 서간(丁巳(1797)閏6月28日)
- (02) 崔國楨이 小田幾五郎에게 보낸 서간(庚申(1800)10月24日)
- (03) 崔瑠이 小田幾五郎에게 보낸 서간(申(1800)10月24日)
- (04) 永野兼一郎²이 三伝語官에게 보낸 서간((1803年1月)12日)
- (05) 朴致儉이 아무에게 보낸 서간(癸亥(1803)2月6日)
- (06) 崔瑠이 小田幾五郎에게 보낸 서간(癸亥(1803)2月24日)
- (07) 賑恤庁別將朴聖奎·李裨將이 内田茂右衛門에게 보낸 서간(乙丑(1805)9月20日)
- (08) 別差 아무가 아무에게 보낸 서간(연대 미상)

그러나 이 한글서간들은 그 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조간 교류 현장의 한국어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주목을 받아, 그 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온 것은 주지된 바이다³.

長正統(1978)에 의해 한글서간 8 통이 소개되면서 대마도 종가문고에 그 밖에도 한글서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추측은 쉽게 할 수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그 후 자료 발굴은 진전되지 못했다. 그것은 그 한글서간들이 대마도 종가문고의 4 만 점에 달하는 일지물(一紙物) 자료 속에 미정리 상태로 매몰되어 있어서 열람조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년에 대마도 종가문고의 일지물 자료가 정리되어 목록이 간행되기에 이르러 이들 자료를 둘러싼 상황은 일변하였다. 이전에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었던 새로운 한글서간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 자료의 열람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09)의 「解題」 p.466 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特異なものといえばハングルで書かれた訳官書状が150通ほどある。そのうち1

에는 丁卯(1807) 10월에 訓導 玄義洵(敬天)과 別差 崔昔(明遠)이 久光市次郎에게 보낸 한글 각서의 사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나 중요한 자료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² 長正統(1978)에서는 이 한글서간의 발신자 이름을 「永野兼一郎」라고 했으나, 「永好堂」(=崔瑠(伯玉))이라고 읽어야 한다.

³ 長正統(1978)에 의하여 소개된 한글서간은 洪允杓(1994)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6 通⁴についてはかつて長正統氏が紹介された(「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史淵』第 115 輯)がなお 100 余通残存しているのである。ほかに漢文による訳官書状や訳官が和館の代官らに手渡した覚書、また釜山へきた使節に「五日次(5 日ごとに渡される食料)」を支給するむねの文書などもある。」

[특이한 것으로서는 한글로 씌어진 역관 편지가 150 통 정도 있다. 그 중 16 통에 관해서는 일찍이 長正統 씨가 소개하셨지만 (「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史淵』第 115 輯) 그 밖에도 100 여통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한문으로 된 역관 편지나 역관이 왜관의 대관들에게 준 각서, 그리고 부산에 온 사절에게 오일차(5 일마다 지급되는 식량)를 지급한다는 문서 등도 있다.]

이 「解題」에 있는 “150 통” 이라는 것이 실수와 어느 정도 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행하게도 2013 년부터 대마역사민속자료관(對馬歴史民俗資料館)의 주관하에 조사사업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글서간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표 1: 대마도 종가문서 한글서간류 일람

連番	管理番号	書簡種類	発信者	印有無	年月日	受信者	備考
001	1096-6	覚書(原本)	崔寿仁(大来)/ 李命和(聖欽)	有	1760.04.17	裁判 (吉村橘左衛門)	
002	1123-152	覚書(写本)	崔寿仁(大来)/ 李命和(聖欽)	無	1760.04.17	裁判	[1096-6]의 사본
003	995-33	書簡	崔鳳齡(來儀)	有	1761.02.07	尊公 [裁判: 通信使講定裁判인가]	
004	815-6-13	覚書(사본)	朴俊漢(士正)/ 朴致儉(景和)	無	1795.09.	小田幾五郎/ 吉松右助	
005	1123-157	覚書(사본)	朴俊漢(士正)	無	1795.09.	小田幾五郎	
006	1692	覚書(사본)	朴俊漢(士正)	無	1795.09.	小田幾五郎	[1123-157]과 같은 내용
007	1689	覚書(사본)	朴俊漢(士正)/ 朴致儉(景和)	無	1795.09.21	小田幾五郎/ 吉松右助	[815-6-6]의 전반 부분의 초고인가?
008	815-6-7	書簡?	朴俊漢(士正)	無	1795.09.24	小田幾五郎	

⁴ 長正統(1978)에 의하여 소개된 한글서간은 16 통이 아니라 8 통이다.

008a	1123-160	漢文覺書	朴俊漢(士正)/ 朴致儉(景和)	有	1795.09.24	小田幾五郎/ 吉松右助	
009	815-6-6	覺書	朴俊漢(士正)/ 朴致儉(景和)	無	1795.09.28	小田幾五郎/ 吉松右助	[1123-160] 및 [815-6-13]을 정리한 것
010	41-6	書簡	朴俊漢(士正)	無	1795.10.18	小田幾五郎	
011	1123-139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6.06.28	小田幾五郎	
012	41-13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6.06.29	小田幾五郎	
013	41-3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6.07.23	小田幾五郎	
014	41-1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7.04.11	小田幾五郎	
015	1123-143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7.閏 06.28	小田幾五郎?	長正統(1978)의 1番
016	54-4-3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8.05.05	小田幾五郎	
017	54-4-2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8.05.24	小田幾五郎	
018	54-4-4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8.07.22	小田幾五郎	
019	54-4-1	書簡	朴俊漢(士正)	有	1798.11.19	小田幾五郎	
020	41-17	書簡	崔國禎(華彥)	有	1798.11.30	小田幾五郎	新訓導下來 消 息
021	54-5-2	書簡	朴致儉(景和)	有	1798.12.01	小田幾五郎	
022	1046-11-52-2	書簡(사본)	朴致儉(景和)	無	1800.09.10	小田幾五郎/ 吉松右助	
023	1123-159	書簡	崔瑀(伯玉)	無	1800.10.24	小田幾五郎	長正統(1978)의 3番, [1123-161]의 전단
024	1123-161	書簡	崔瑀(伯玉)	無	1800.10.24	小田幾五郎	[1123-159]의 후단
025	1123-151-1/2	書簡	崔國禎(華彥)	有	1800.10.24	小田幾五郎	長正統(1978)의 2番
026	41-12-1/2	書簡	崔瑀(伯玉)	有	1801.03.07	小田幾五郎	
027	[記錄類Ⅲ朝 鮮關係 /B-16]挿入	書簡	崔瑀(伯玉)	有	1802.09.03	小田幾五 郎	「(享和三癸亥) 御内密御用書物 」挿入
028	821-3	書簡	崔瑀(伯玉)	無	1802.11.23	小田幾五郎	
029	54-2-5	書簡	玄斌(陽元)	有	1802.12.22	小田幾五郎	
030	1123-146	書簡	崔瑀(伯玉)	無	1803.01.12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吉松右助	長正統(1978)의 4番
031	1123-154	書簡	朴致儉(景和)	有	1803.02.06	小田幾五郎	長正統(1978)의 5番
032	54-2-8	書簡	玄斌(陽元)	有	1803.02.18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33	1123-145	書簡	崔瑀(伯玉)	無	1803.02.24	小田幾五郎	長正統(1978)의 6番
034	54-2-4	書簡	玄斌(陽元)	有	1803.02.26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35	41-8	書簡	玄斌(陽元)	有	1803.02.27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吉松右助	
036	41-16	書簡	朴致儉(景和)	有	1803.02.28	小田幾五郎	
037	[記錄類Ⅲ朝鮮關係/B-55]挿入	書簡	玄斌(陽元)	無	1803.04.02	小田幾五郎	「通詞小田幾五郎倭館にて訳官と申談候記録」挿入
038	[記錄類Ⅲ朝鮮關係/B-7]挿入 제 1	覺書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吉松右助	無	1803.06.05?	朴致儉(景和)	「小田幾五郎訳官との懸合一件」挿入 제 1
039	[記錄類Ⅲ朝鮮關係/B-7]挿入 제 2	覺書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吉松右助	無	1803.06.05?	朴致儉(景和)	「小田幾五郎訳官との懸合一件」挿入 제 2
040	[記錄類Ⅲ朝鮮關係/B-7]挿入 제 3	覺書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吉松右助	無	1803.06.05?	朴致儉(景和)	「小田幾五郎訳官との懸合一件」挿入 제 3
041	[記錄類Ⅲ朝鮮關係/B-7]挿入 제 4	覺書	小田幾五郎/牛田善兵衛/吉松右助	無	1803.06.05?	朴致儉(景和)	「小田幾五郎訳官との懸合一件」挿入 제 4
042	[記錄類Ⅲ朝鮮關係/B-7]挿入 제 5	覺書	小田幾五郎	無	1803.07.24	朴致儉(景和)	「小田幾五郎訳官との懸合一件」挿入 제 5
043	42-19	覺書	小田幾五郎	無	1803.07.24	朴致儉(景和)	[記錄類Ⅲ/朝鮮關係/B-7]「小田幾五郎訳官との懸合一件」挿入 제 5와 내용이 유사함
044	54-2-7	書簡	玄斌(陽元)	有	1804.04.26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45	41-18	書簡	玄義洵(敬天)	有	1804.05.18	小田幾五郎	
046	1123-150	書簡	崔國禎(華彦)	有	1804.07.03	小田幾五郎か	

047	1123-156	書簡	崔国禎(華彦)	有	1804.11.18	小田幾五郎	
047a	国史編纂委員會「朝鮮關係覺書綴」所収[MF 692]	覺書	玄斌(陽元)/玄義洵(敬天)	有	1804.12.	代官 僉公	
048	41-20	書簡	崔国禎(華彦)	有	1805.02.13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筆跡은 玄義洵(敬天)의 것인가
049	48-13	書簡	玄斌(陽元)	無	1805.03.16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50	48-16-1/2	書簡	崔国禎(華彦)	有	1805.03.16.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51	61	書簡	崔珮(伯玉)	無	1805.06.22	小田幾五郎	
052	1123-158	覺書	別將 朴聖奎/李禪將	有	1805.09.20	內田茂右衛門	長正統 (1978)의 7番
053	48-6	書簡	玄斌(陽元)	有	1805.12.04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54	48-8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2.02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筆跡은 玄斌(陽元)의 것인가
055	48-12	書簡	玄義洵(敬天)	有	1806.02.21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56	48-2	書簡	玄斌(陽元)	無	1806.02.21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筆跡은 [48-12]와 같고 玄義洵(敬天)의 것인가
057	48-7	書簡	玄斌(陽元)	無	1806.03.02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58	48-14	書簡	玄義洵(敬天)/ 玄斌(陽元)	無	1806.03.04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筆跡은 玄斌(陽元)의 것인가
059	48-15	書簡	玄義洵(敬天)/ 玄斌(陽元)	無	1806.03.05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筆跡은 玄斌(陽元)의 것인가
060	48-5	書簡	玄義洵(敬天)/ 玄斌(陽元)	無	1806.03.06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筆跡은 玄義洵(敬天)의 것인가
061	48-3	書簡	玄義洵(敬天)/ 玄斌(陽元)	無	1806.03.14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筆跡은 玄義洵(敬天)의 것인가
062	48-4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3.17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63	48-9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3.17	小田幾五郎/	筆跡은

			玄焄(陽元)			牛田善兵衛	玄焄(陽元)의 것인가
064	48-1	書簡	玄義洵(敬天)/玄焄(陽元)	無	1806.03.23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65	48-10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3.24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66	54-2-3	書簡	玄義洵(敬天)/玄焄(陽元)	無	1806.03.27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67	41-2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3.28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68	41-10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3.28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69	54-2-6	書簡	玄義洵(敬天)/ 玄焄(陽元)	無	1806.04.01	小田幾五郎?	쓴 사람은 玄焄(陽元)인가
070	41-19	書簡	玄義洵(敬天)/ 玄焄(陽元)	無	1806.04.01	小田幾五郎	
071	41-5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4.04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72	54-2-2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4.04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73	54-2-1	書簡	玄焄(陽元)	無	1806.04.04	小田幾五郎	
074	48-11	書簡	玄焄(陽元)	無	1806.04.14	小田幾五郎	
075	54-5-1	書簡	玄義洵(敬天)/玄焄(陽元)	無	1806.04.21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76	54-5-4	書簡	玄義洵(敬天)/玄焄(陽元)	無	1806.04.25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77	54-5-3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04.28.	小田幾五郎	
078	1691	口書 (草稿)	小田幾五郎?	無	1806.06?	東萊府使?	
079	54-1-7	口書 (草稿)	小田幾五郎?	無	1806.08.19 초 가?	東萊府使	뒷면 끝에 「初發書立之分 」라고 적혀져 있어서 제 1 차 원고로 보임
080	823-28	口書 (草稿)	小田幾五郎?	無	1806.08.19	東萊府使	[819-14]의 前段
081	819-14	口書 (草稿)	小田幾五郎?	無	1806.08.19	東萊府使	[823-28]의 後段
082	1684	口書 (草稿)	小田幾五郎?	無	1806.08.19	東萊府使	[54-1-7], [823-28] [819-14]를 정리, 수정한 것인가

083	54-3-6	書簡	玄義洵(敬天)/ 玄斌(陽元)	無	1806.10.08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84	815-8-9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11.07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85	54-3-7	書簡	玄斌(陽元)	無	1806.11.21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86	54-3-5	書簡	玄義洵(敬天)/ 玄斌(陽元)	無	1806.11.24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87	54-3-1/2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6.11.30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88	54-3-8	書簡	玄義洵(敬天)/ 玄斌(陽元)	無	1806.12.05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89	54-3-4	書簡	玄義洵(敬天)/玄 斌(陽元)/崔昔(明 遠)	無	1806.12.07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90	54-3-3	書簡	玄斌(陽元)	有	1806.12.18	小田幾五郎	
091	1688	口書 (草案)	小田幾五郎?	無	1807?	東萊府使?	
092	815-8-10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7.01.27	小田幾五郎	
093	41-9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7.01.29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815-8-8]보다 먼저 발신된 것인가
094	815-8-8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7.01.29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41-9]보다 뒤에 발신된 것인가
095	815-8-6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7.01.30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96	815-8-7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7.01.30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97	815-8-5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7.02.09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098	815-8-3	書簡	玄義洵(敬天)	有	1807.02.15(朝)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815-8-4]와 同筆이며 다른 사람이 쓴 것
099	815-8-4	書簡	玄義洵(敬天)	有	1807.02.15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815-8-3]과 同筆이며 다른 사람이 쓴 것. 경상도 방언의 특징이 있음.
100	1123-155	書簡	玄義洵(敬天)/崔 昔(明遠)	無	1807.05.01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41-7]보다 먼저 발신된 것인가. 筆跡은 崔昔(明遠)의 것인가.

101	41-7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7.05.01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1123-155]보다 뒤에 발신된 것인가.
102	41-21	書簡	崔昔(明遠)	無	1807.05.21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103	41-14	書簡	玄義洵(敬天)	無	1807.06.01	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	
104	1687	口書 (草稿)	小田幾五郎?	無	1807.06.16	任官, 東萊府使	[1685]보다 전단계의 초고
105	1685	口書 (草稿)	小田幾五郎?	無	1807.06.16	任官, 東萊府使	[1687]를 정리한 것
106	812-19-3	書簡(写し)	玄義洵(敬天)	無	1808.02.22	久光市次郎	小田幾五郎이 작성한 사본인가
107	812-19-4	書簡(写し)	玄義洵(敬天)	無	1808.02.22	小田幾五郎	小田幾五郎이 작성한 사본인가
108	998-6	書付	広瀬与市	無	1818.05.19	玄義温(聖著)	授受 場所는 대마도
109	844-9-1/2/3	上申書	全羅道江津[濟州] 居民 김순득(金順得)死親繼父인 승응 /異性再從弟 고중삼	無	1823.06.07		長崎에서 씌어진 것
110	989-48-1~3	上申書	全羅道海南漁 民 6 名	無	1831.05.	伝語官	
111	1123-162	書簡	崔[王岡] (伯玉)か?	無	年月日不明	受信者不明?	漢文 인용문 있음
112	48-17	書簡	玄斌(陽元)	無	年代不明 1804~1806? 02.16	小田幾五郎	玄斌(陽元)이 訓導로 在任하던 기간(1804-1806) 중에 작성된 것인가
113	1123-140	書簡	崔昔(明遠)	無	年月日不明	小田幾五郎?	長正統(1978) 의 8 番. 1807 年 여름에 작성된 것인가
114	41-15	書簡	別差	無	年月日不明	僉候(小田幾五郎/ 牛田善兵衛か)	崔昔(明遠) 의 筆跡인가

대마역사민속자료관(對馬歴史民俗資料館)에서는 위의 새로 발굴된 한글 서간류에 대하여 과거 2 년간에 걸쳐 해독작업을 실시해 왔다. 다음 장에서는 그 해독작업의 내용, 특히 한글서간류의 연대 등에 관한 고증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마도 종가문서 한글서간류의 해독작업: 다른 역사기록과의 대조

이번에 발견된 한글서간류에는 발신자, 수신자, 연대 등 자료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명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 따라서 한글서간류의 내용을 다른 자료, 특히 역사기록류와 대조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를 얻어 나가야 한다. 다음은 小田幾五郎「御用書物控」, 「倭館館守日記」, 「朝鮮通信使記錄」 등과 대조함으로써 연대 등을 밝혀낼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

2.1 한글서간[54-2-1]의 연대 추정: 小田幾五郎 「御用書物」

대마도 종가문고 속에 조선통신가 역지행방(易地行聘) 교섭과정에 관하여 小田幾五郎이 기록한 「御用書物」, 및 그 초고가 있는데 그것들과 대조함으로써 한글 서간류의 연대 등을 밝혀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글서간[54-2-1]에는 연, 월이 적혀있지 않지만 「御用書物」의 초고인 一紙物資料[895-2]와 대조하면 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連番	史料番号	書簡種類	發信者	印有無	年月日	受信者	備考
073	54-2-1	書簡	玄斌(陽元)	無	1806.04.04	小田幾五郎	

【本文】

謝上

手書는 즉시 보아스오며 今日 下往 候려
 候엿더니 오날은 步行이 올 듯 候옴기
 의 苦待 候엿더니 卽今이야 步行이
 下来 候여기의 京書를 보온즉 몬져
 候엿든 接慰道는 病患으로 가랴시고 徐
 校理 能輔란 兩班이 改差 候셔 今月
 二三日 間の 丁寧 發行 候신다 候고 堂
 上 差備는 子謙 李同知요 堂下는 君美
 玄主 簿가 候여 오 〃 니 苦待 候옴다가
 이런 것븐 일은 彼此一般이오매 爲先
 아랴시게 急 〃 告別 候옴고 明日은 掃
 萬事 候고 下往 候오와 仔細이 말씀도

흐옵고 書付도 흐을 거시니 그리 아르
 시고 기다리고 禮物도 明日 入送흐오리이
 다 暫上
 初四日 訓導

이 한글서간에는 연대가 적혀있지 않고 다만 날짜만 “初四日”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一紙物資料[895-2] 文化3년(1806) 4월 5일 조에

· 坂の下へ我々罷越 書狀の返事 漸都便り有之 委細別差方へ申越候に付 別差と御談し可被下と申来候に付 委聞合候へは 大丘より廿日に斷被申登 廿二日斷書都へ達 廿六日代り被申付 当月二日三日の内新接慰官都出立の段 申聞候事

[임소가 있는) 사카노시타(坂の下)에 우리들이 나갔다. 편지 답장이 왔다. 드디어 서울에서 편지가 와서 자세히 별차 쪽에 전달하였기에 별차하고 의론해 주십사는 내용이었으니 (별차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더니 (지난번에 임명되었던) 접위관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대구에서 20일에 (접위관 직을) 사절한다는 편지를 (서울에) 올리고 22일에 그 편지가 서울에 도착하였다. 26일에 대신 접위관이 임명되었고 이 달(4월) 2, 3일에 신접위관이 서울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라고 하고, 또 동년 4월 6일 조에

· 別差入館 新接慰官徐能輔 差備官子謙李同知 君美玄主簿 改差の段 書付差出す

[별차가 입관하였다. 신접위관은 徐能輔, 차비관은 子謙李同知와 君美玄主簿로 改差되었다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라고 하여 이 편지 내용과 부합되는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한글서간[54-2-1]은 丙寅=文化3년(1806) 4월 4일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2.2 한글서간[54-4-2]의 연대 추정: 「倭館館守日記」

다음 한글서간 [54-4-2]에는 연대가 적혀있지 않지만 「倭館館守日記」와 대조함으로써 그 연대를 밝혀낼 수가 있다.

連番	史料 番号	書簡 種類	発信者	印有無	年月日	受信者	備考
017	54-4-2	書簡	朴俊漢(土正)	有	1798.05.24	小田幾五郎	

【本文】

大通官 任案 回上

편지 보옵고 년하여

〔擡〕平安하신 일 아옵고 깃부오며 船便

의 常四郎 公이 平安 出來흔

가 보오니 오죽 든〃 하시리잇가 반

가온 弔別이 잇는가 今明間 下來

하려 하였습더니 아직 的實

흔 弔別이 아니 오다 하오니 답〃

하고 굶〃 하오며 後 飛船 便의나

快히 順成흔 好消息이 잇스

올지 苦待〃 하느이다 待晴 卽

爲下往하오면 面叙하올 거시매

暫上

五月 二十四日 〔右〕土正 朴僉知 〔印〕

이 한글서간 [54-4-2]에는 연대가 안 적혀있다. 그런데 「倭館館守日記」
寬政 10년(1798) 5월 23일 조에

・今早朝下の口より大船二艘相見候段 船見より遂案内 無程浦入の処 御米漕
住吉丸船頭高雄喜八 御物送状の通積之 組下横目代り御鉄砲助左衛門 御道具
格平乗り組 今壹艘御米漕寿吉丸船頭北村平助 御物送状の通積之 勤番代り大
通詞小田常四郎乗組 無異義館着

(中略)

・大通詞小田常四郎依願 御番所行規申渡 揚陸為届入来に付 遂対面御添状差
出

(中略)

・勤番大通詞小田幾五郎為代 大通詞小田常四郎被差渡候付 乗り船御改相濟候
は、新古交代可致旨 連名の以手紙 相届

(中略)

・小田幾五郎 小田常四郎 交代の上 同然罷出候付 遂対面

(後略)

[· 오늘 새벽에 시모노구치(下の口)에서 큰 배 2 척이 보인다는 연락이 후나미(船見, 배를 망 보는 일을 담당는 부서)에서 왔다. 곧 항구에 들어왔는데 (중략) 긴반(勤番) 교체 대통사 오다 죠시로(小田常四郎)가 타 있어서 틀림 없이 왜관에 도착했다. (중략)

· 대통사 오다 죠시로(小田常四郎)가 청원하기에 고반쇼(御番所)에 조사하도록 신칙하였다. 상륙했다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왜관관수인 나에게) 왔으므로 만났는데 (그 때에) 첨장(添狀)을 제출하였다.

(중략)

· 긴반(勤番) 대통사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와 교체하기 위하여 대통사 오다 죠시로(小田常四郎)가 파견되었으니 타고 온 배의 조사를 마치면 신고(新古) 교체한다고 연명(連名) 편지로써 연락해 왔다.

(중략)

·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와 오다 죠시로(小田常四郎)가 교체한 후 같이 왔으므로 만났다.]

라고 하여, 寛政 10년(1798) 5월 23일에 대통사 오다 죠시로(小田常四郎)가 긴반(勤番) 교체를 위해 배로 왜관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한글서간[54-4-2] 속의 “船便의 常四郎 公이 平安 出來 가 보오니”라는 내용과 부합되므로 이 한글서간[54-4-2]의 연대는 戊午=寛政 10년(1798)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2.3 한글서간[1046-11-52-2]의 내용 추정: 小田幾五郎 『御用書物』과 『朝鮮通信使記録』

다음 한글서간 [1046-11-52-2]는 연대, 발신자, 수신자 등이 명기되어 있어서 이 편지의 내력은 거의 명백하기는 하나, 小田幾五郎 『御用書物』과 『朝鮮通信使記録』을 참고함으로써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連	史料番号	書簡種類	発信者	印有無	年月日	受信者	備考
---	------	------	-----	-----	-----	-----	----

番							
022	1046-11-52-2	書簡(寫し)	朴致儼(景和)	無	180.09.10	小田幾五郎/吉松右助	

【本文】

袖書：本書館守に有之

大通官

吉松右助 兩公 前 回納

手札 맞즈와 보오니 連亨여

【擡】公候平安호오신 일 아옵고 깃브오며

僕은 如昨호오니 幸이오며

귀별호오신 스연은 즈시

보왓스오나 거번의 弥七

公이 旧別差公계 호오신

말슴을 즈시 못즈온즉

과연 놀나온 일이옵

더니 華彦公 在京호

여 無弊이 호엿스오니

多幸호옵거니와 이 後는

그런 말슴이 나지 아니호

게 조심호오쇼셔 來日

下往호오와 말슴호을

거시되 暫上

庚申 九月初十日 訓導 印

追白 旧別差公도 이제는

그 公幹의 參撰호는 사름

이오되 館中 말슴이 맞

지 나올가 녀너호오되

관계치 아니호오니 此後

의 나가는 사름의게나

말이 나지 아니호옵게

조심호오쇼셔

이 한글서간 [1046-11-52-2]은 庚申=寬政 12년(1800) 9월 초 10일에 혼도 朴致儉(景和)이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와 요시마쓰 우스케(吉松右助)에게 보낸 것인데 야시치(弥七)라는 사람이 구별차 崔瑠(伯玉)에게 누설시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누설시킨 야시치(弥七)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며 그가 누설시킨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가 라는 것이다. 그러한 정보는 이 한글서간 자체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小田幾五郎 「御用書物」과 「朝鮮通信使記録」을 찾아보면 관련 기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

小田幾五郎 「御用書物」[記録類Ⅲ/朝鮮關係/B/17] 「寬政拾貳庚申年御内密書物控二」 寬政 12년(1800) 5월 9일 조에는 다음과 같이 야시치(弥七)가 누설시킨 이야기와 관련된 기사가 있다.

・訓導より別て御使へ御咄申候は 右御用筋是迄何事も内々より洩れ候儀無御座候処 此四五日前 別差より申聞候品有之 誠に以太切に御座候 委細は兩人へ相咄し可申との趣申出候事

御使御退座の上 幾五郎 右介へ密々相咄候は 別差より拙者へ申候は 去比士正取次にて御書契を以 對州切にて信使相濟可申段被申越 其御書契御取歸りの御使ハ府□□ 早速死去為有之由にて 其後御左右無之との儀 右御用如何相成候哉と相尋 誠ニ以致当惑候 拙者より申候者 御書契の言事は如何の儀共に候哉 拙者も士正存生之時より□ 御用承居候得共 全躰存し不申 士正取次被差向候時 表向其通りに相成可申事共不存 夫は委敷訳不知噂に候とさわらす申置候 尤其人物相尋度存候処 使を詰候得は 却て不宜態と大様に申置候 此御用委く相出に不及 表向打出に不相成前 此等の噂はつと致候ては 朝廷の内意相知 拘りの宰相達初不首尾に相成 本事の疵を求め候()に御座候 殊更当別差は近々交代前都表に登り候上 右様の噂も可致哉 物知顔を致候事を好み

□質に御座候得は 誠に不安存候段相咄候付 別差へ相咄候人物は御推量無之哉と申見候処 訓導より別差口氣假傳言官内より為出かと被存候 尤此前御使御病死□□相咄し候人は存居候 近来別差と別懇の人も一兩人有之候間 其口共にて可有之哉と存候 以来の処 堅御示し有之度段 細々申聞候事

〔전략〕 (별차 崔瑠(伯玉)이 나(朴致儉(景和))에게) “거번에 朴俊漢(士正)이 중계하여 서계로써 (에도가 아니라) 대마도까지 통신사가 가도록 결정한다고 (일본측에) 전달했는데 그 서계를 가지고 간 사자는 (대마도) 부중(府中)[에 돌아간 후] 곧 죽었다고 하며 그 후 그 소식은 없다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었습

니까” 라고 물어보기에 (나는) 아주 당황했습니다. (중략) “거번에 사자가 병사하였다” 는 이야기를 누설시킨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후략)]

이 한글서간의 내용은 후일에 대마번에서 에도(江戸)막부에 보고되게 되었다. 즉 「朝鮮通信使記録」 「文化信使記録 江戸書留」 慶應冊子番号 25 文化 4 年(1807) 12 월 27 일 조에는 대마번의 에도야시키(江戸屋敷)에 있던 나카가와 오쿠에몬(中川奥右衛門)이 막각(幕閣) 와키사카 나카쓰카사 다유(脇中務大輔)에게 제출한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一昨廿五日奉申上候趣 書調申上候様との御達に付 別帳に相調 乍恐
御覽に奉差上候 以上

十二月廿七日 御名内

中川奥右衛門

奉申上候

陶山弥七郎と申通弁の者朝鮮人え申込候品有之由 私儀先年朝鮮表え相詰罷在候時分 其時の訓導相勤居候景和と申朝鮮人より通詞小田幾五郎え相咄候次第 同人より私え内密申聞驚入候次第に付 此儀は至て大切の事[に?]候間 訓導申聞候通を景和え自筆にて書付させ印章をも取り 密に差出候様相達 則朝鮮人常に相用候諺文にて認有之を入手仕 直に其段国許家老共え極内〃申越し 繁右衛門方えも申越置候儀に御座候

但右訓導と申は御通交に付内外の駈引を相働候役目の朝鮮人にて御座候 諺文と申は 日本にて申かなの如きものにて 凡字数の定り有之 言葉遣に依 其字を合せ読候て 通用仕候 扱又右景和儀は無程相頓果申候 存生にも候得は 士正同時の者にて此節御用辺に取 大に訳宜御座候得共 口惜き儀に奉存候 扱又右不埒の儀を申入候を其節朝鮮にて其糺もなく 対州にても其糺なく 打過候は大様とも被為思召候由 御尤の御儀奉恐入候 其時分は右 御用筋議聘の筋にて

日本朝鮮共未だ御打出に不相成 専御内密の御掛合せ中にて 殊右弥七郎失言にて其節是と御用辺に相障候振も無御座候得は 相糺候儀は何時も出来候事と奉存

右の如く朝鮮人より申たる通を書付させ為取置候儀に御座候処 弥七郎儀も其後相果残念奉存候

一 右朝鮮人より書付候て請取居候書面の趣覚居候哉と被遊御尋候得共 年久敷義にて相覚不申 其時分通詞の者より申聞候趣は 先年省整易地の儀に付 朝鮮より

日本へ来候礼曹の書等取帰候御使は帰国無程相果 右の書簡等如何成行候哉不相

知 扱又易地の儀は対州の者申立 功とも可仕意を以為仕 等の事をも申込候様
に 朝鮮人より通詞え相咄候段を承知仕罷在候

一 右景和より書付小田幾五郎と申通詞え差出候書面 私朝鮮より取歸所持仕居
候を早〃取寄 差上候様との御事奉畏 早〃国許え申遣 到来次第差上候様 可
仕候

(中略)

右の趣乍恐書調奉申上候 以上

十二月廿七日

御名内

中川奥右衛門

[(전략) ” 스야마 야시치로(陶山弥七郎)라는 통사가 조선사람에게 (나쁜 말을) 붙여넣은 일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제가 조선에 있을 때에 그 당시 훈도를 맡고 있던 朴致儉(景和)라는 조선사람이 통사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에게 했다고 동인(오다 이쿠고로)이 저에게 비밀리에 말했기 때문에 놀랐다. 그런 고로 이 일은 극히 긴급한 일이므로 훈도가 말한 대로 朴致儉(景和)에게 자필로 기록하게 하고 도장도 찍게 하고 비밀리에 제출하게 하도록 전달하였다. 그래서 조선사람이 늘 쓰는 언문(諺文)으로 적혀진 것을 입수하고 바로 그런 내용을 대마도 가로(家老)들에게 극비리에 전달하고 오오모리 시게에몬(大森繁右衛門)에게도 전달한 것입니다.

(중략)

하나. 그 조선사람이 기록하고 (그에게서) 받아본 문서의 내용을 기억하느냐고 (와키사카 나카쓰카사 다유(脇坂中務大輔)님이) 물어보시지만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시절에 통사에게서 들은 바로는 “연전에 생폐역지(省弊易地)에 관해서 조선에서 일본에 보낸 예조 서계 등을 가지고 돌아간 사자는 (일본에) 귀국한 후 곧 죽고 그 서관 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또 역지한다는 일은 대마도 사람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서 공로를 세우려는 의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붙여넣었다고 조선사람이 통사에게 말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朴致儉(景和)가 기록하고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라는 통사에게 제출한 문서를 제가 조선에서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즉시 가져오게 하고 제출하도록 하라는 명령은 삼가 잘 들었습니다. 즉시 대마도로 전달하고 도착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위 내용을 삼가 쓰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12 월 27 일 온나노우치(御名内)

나카가와 오키에몬(中川奥右衛門)]

위의 2 가지 기록에 의하여 구별차 崔瑀(伯玉)에게 누설시키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야시치(弥七)라는 인물은 바로 통사인 스야마 야시치로(陶山弥七郎)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그가 누설시킨 이야기의 내용은 역지행빙(易地行聘)을 승락한다는 예조의 서계를 寬政 10년(1798) 12월 21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지고 간 사자 나카가와 요스케(中川要助)가 대마도에 도착한 후 곧 죽고 그 후 그 서관 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3. 마무리

이 논문에서는 대마역사민속자료관(対馬歴史民俗資料館)에서 과거 2 년 간에 걸쳐 실시된 한글서간류 조사사업의 내용, 특히 한글서간류의 연대 등에 관한 고증 과정을 소개하였다. 올해 3월에 한글서간류의 사진과 번각문, 일본어 번역문, 현대한국어 번역문, 해설 등을 담은 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으니, 이것을 계기로 하여 이 자료들이 여러 분야의 연구자료로서 많이 이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長正統(1978), 「倭学訳官書簡よりみた易地行聘交渉」, 『史淵』 115 집,
95-131 쪽, 九州大学文学部
- 岸田文隆(2014), 「対馬宗家文書朝鮮語ハングル書簡類の解読作業について」,
『국어사연구』 18 집, 161-191 쪽, 국어사학회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09), 『対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目録』(1)~(3), 長崎
県教育委員会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2), 『対馬宗家文庫史料絵図類等目録』, 長崎県教育
委員会
- 対馬歴史民俗資料館編(2015), 『対馬宗家文書史料 朝鮮訳官発給ハングル書
簡調査報告書』, 長崎県教育委員会
- 洪允杓(1994), 『近代国語研究(I)』, 서울: 태학사

